



‘예술공간 집’이 45세 이상 중견 작가를 대상으로 시작한 ‘전시실 너머 실험실’ 전 첫 주자로 나선 표인부 작가.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롭게 시도한 종이 작업...즐거움 모험이었죠”

표인부 작가 ‘전시실 너머 실험실’ 전... ‘예술공간 집’ 31일까지 전시 “실·커피 등 소재 실험 통한 ‘바람의 기억’ 연작, 판화 작업 선보여”

작품 앞에 서면 녹색 숲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 이 든다.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에 풀이 누웠다 일 어났다 하는 듯 싶고, 새 소리도 들릴 듯하다. 어떤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 그 바람 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관 후 의미있는 기획전을 열어 온 ‘예술공간 집’이 올해 ‘전시실 너머 실험실’ 전 을 시작한다. 45세 이상 작가에게 주목한 기획으 로 1년에 한 명의 작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그 첫 주자는 종이 작업을 하는 표인부(51) 작가로 오는 31일까지(25일 휴관) 관람객을 만난다.

문화영 예술공간 집 관장은 당초 지난 9월 광주 비엔날레를 맞아 표 작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광 주 출신이지만 중앙에서 활동하다 지금은 익산에 작업실을 둔 표 작가도 작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이 는 전시라는 점에서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코로나 라는 북병으로 비엔날레가 연기되며 ‘함께 대화하 는’ 시간이 길어졌고 중견 작가들의 새로운 사유를 이끌어내는 기획전으로 이야기가 확장됐다.

미술계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룹은 45세부터 60대 초반 작가들이다. 20~30대 작가들 은 수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45세까지를 젊 은 작가로 규정하는 사업들도 많지만 중견작가 대 상은 거의 없다. 기획전 성격은 ‘전시실 너머 실험 실’이라는 이름에 잘 나타나 있다. 중견 작가의 탄 탄한 기존 작업을 바탕으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조금 더 열광했어도 새로운 시도들을 한 작 품들을 선보인다는 생각이다.

‘실험적’이라는 말에선 20~30대 작가를 연상하 기 쉽다. 사실, 중견 작 들에게선 ‘늘 그 그림이 그 그림’이라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 앞

에서 쉽 없이 고민하는 모습들 역시 30년 넘는 화 업을 이어온 중견작가들의 일상이다.

첫 호명을 받은 표 작가는 “아주 즐겁게 작업했 다”고 말했다. “즐거움 모험심도 생겼다”고 했다. 조선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중국 남경예술 학원 수인판화 석사 과정을 마쳤고 2012년부터 종이를 겹겹이 이어 붙인 ‘바람의 기억’ 연작으로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칫 종이 붙이는 작업에 머물러 비슷한 작품 의 수량만 추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 나뭇 가지 작업들을 해 오고 있던 참이 었는데 제안을 받았죠. 같은 맥락의 작품이지만 새로운 형태로 깎집어 내 제작하니 사고의 유연성 도 생기고 재미있었습니다. 커피나 실을 활용하는 등 재료 사용에 대한 과감성도 생기구요.”

이번 전시작 중 파지(破紙)를 활용한 작품도 늘 머릿 속에만 있던 것을 구현한 작품이다. 기존 작 품이 한지를 붙이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엔 직접 글씨를 쓴 종이를 붙이는 작업을 시도하고, 10호 규모의 샘플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지에는 돌 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백, 작가 노트, 그날 느낀 바람 등을 서예붓으로 써내려갔고 일일이 잘 라 붙였다. 또 15년만에 판화 작품을 다시 시작했 고 전시에 내놓았다.

그의 작품은 지난한 노동의 결과다. 초기에는 연색된 한지를 썼지만 인위적 느낌이 싫어 일일이 직접 채색을 한다. 이어 종이를 손으로 찢고, 잘 라내 초배지를 바른 캔버스에 빼곡이 붙여나간 다. 작업을 하고 나면 꼭 화면에서 갈 정도로 중 노동이 일상이 됐다. 이번엔 ‘바람이 훑고 지나간 초원의 의미’를 담고 싶어 종이 따를 일일이 붙여

나가기도 하고, ‘비움’을 모색하며 실에 먹을 뿌 려 작업을 하기도 했다.

“제 작품은 결국 바람을 통해 기억을 풀어내는 작 업이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맥락은 같지요. 작업 소재가 바뀌면서 같은 맥락 속에서 새로운 ‘바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수십년 전 읽은 책 ‘작업실의 자코메티’를 늘 마음 속에 품었다. 자코메티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는 과정과 태도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사물 등을 대하는 태도, 본인만이 갖고 있는 완성 과 미완성의 의미, 유연성과 실험정신 등이 늘 마음 에 남았다.

“지나 생각해 보면 40대 때 참 열심이었던 거 같 아요. 40대 초반엔 힘들면 포기해 버리기도 했는 데 중반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타협 대신 개선 하려했고, 결과에서는 분명히 그 성과가 드러나더 군요. 다음 전시장에서는 더 큰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관장은 “늘 다른 전시장과 똑같은 작품을 보 여주는 건 작가에게도, 저에게도 의미가 없어 특 별한 것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다” 며 “표 작가님 작업실의 더 거친 작업들이 이번 전 시에 나왔어도 좋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있었어요. 의미있는, 긍정적인 부담들이었죠. 기획의도에 맞게, 제가 스타 트를 잘 끊어낸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 중견작가들은 원숙함과 자기의 작품을 밀고가는 힘 이 있지만 자칫 굳어지고 관념화될 수도 있죠. 이번 에 그것들을 적게나마 깎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그는 회화 작업도 다시 시작하고 마른 나무를 쪼개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좀 더 다 양한 모험을 떠나보려 한다고 했다.

‘전시실 너머 실험실’ 시리즈가 중견작가들의 도전 정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7개 부문 후보...내년 1월 11일 발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창작뮤지컬 ‘광주’ <사진>가 한국뮤지컬어워즈 대 상 후보에 올랐다. 광주문화재단은 23일 뮤지컬 ‘광주’가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을 포함해 7개 부 문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작된 한국뮤지컬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와 인터파크 씨어터가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뮤지컬 ‘광주’가 이름을 올린 부문은 ▲대상 ▲ 앙상블상 ▲프로듀서상(강병원) ▲연출상(고선 응) ▲극본상(고선웅-안준원) ▲음악상(최우정) ▲안무상(신선호) 등이다.

한국뮤지컬어워즈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국내에서 개막한 작품 중 공연일 자 7일 이상 또는 공연회차 14회 이상 유료 공연 된 창작 및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들을 대상으로 후보작을 모집했다.

한국뮤지컬어워즈 대상 후보에는 뮤지컬 ‘광 주’를 비롯해 ‘마리 퀴리’, ‘백범’, ‘작은 아씨들’ 등이 노미네이트 됐다.

시상식은 오는 2021년 1월 11일 오후 7시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열리며 네이버TV로 생중계된다.

한편, 광주문화재단과 ㈜라이브, 극공작소 마방 진이 공동제작한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 제로 한 뮤지컬로 지난 10월 서울에서 개막, 고양, 부산, 전주, 광주 등에서 공연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셋길-오아시스’ 온라인 전시

코로나 시대이지만 미디어아트를 통해 우리는 연결돼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 제9기 미디어 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가 열린다. 5명의 작가가 참여한 ‘셋 길-OASIS’ (셋길-오아시스)가 유튜브 광주문화 재단TV와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상영된다.

이번 ‘셋길-오아시스’는 강수지, 김형숙, 이부 리(이근우), 유지원, 김명우 다섯 작가가 각자의 공간에 설치한 작품과 활동 소감을 매개로 관람객 과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명우 작가는 매체 발달과 일상의 변화에서 영 감을 얻어 ‘흐름’을 주제로 ‘Flame Fall’ 영상과 설치 작품을 출품했다. 이부리 작가는 고향 순창에 서 채집한 거미줄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과 옥수수 발 이야기를 담은 영상 ‘윈의 함정’을 출품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흑백사진으로 표현한 강수지 작가의 사진작품 ‘Untitled’는 ‘틈’의 의미를 부여하며, 유지원 작가는 프랑스 유 학시절 버려진 수첩 속의 내용을 토대로 ‘시가 없



‘흐름’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김명우 작가

는 세상’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김형숙 작가는 연작 시리즈물인 ‘기하학 연구’의 하나로 작업실 기둥과 실을 활용해 작품을 설치했다.

이들 작가들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전 시, 교류,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미디어아트 레지 던스 특별기획전 ‘더빙커展’에 참가했다. 한편, 전시는 작품 상영시간 24분, 작가 인터뷰 상영시 간 14분이며 광주문화재단TV 유튜브 채널, 미디어아트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